

한국과 일본의 산란계 산업 비교

장경만¹, 윤병선²

국립한경대학교¹ 동물생명자원학과, ² 친환경농축산물인증센터

Abstract

Recently, layer industry show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farm and increase in rearing scale in both Korea and Japan. Seventy percent of layer farms in Japan feed more than 50,000 birds per each farm but in Korea, only 19.3% of layer farms are feeding more than 30,000 birds which covers 59% of total chicken number. This tendency will be more accelerated from now on. Brand egg production in Japan is developed with the involvement of farmers, sailers feed companies and also the marketing structure of brand egg is well organised in between farmers and consumers. However in Korea, the marketing structure of brand egg is not well settled for this reason the egg price is often decided lower much price than regmrlar price by the intermediate dealers. Under this kind of tough situation, Korean layer farmers are stressed to develop new brand products such as functional egg, settle the sales and distribution network with the good cooperation of farmers, and distributors.

▶ **Key words** : layer, brand egg, marketing structure

서론

한·일 산란계 산업은 외국산도입 품종과 전량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사육체계 아래, 농가수의 감소, 지속적인 규모확대, 소비량정체,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을 경험하였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일간 산란계 산업

의 위치 및 경제성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하고 국내 산란계 산업의 발전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선연구자료 검토 및 일본현지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론

1. 양국의 산업 비교

일본의 산란계 사육규모는 기업경영이 확대되면서 농가수는 1990년 86,500호에서 2003년 4,300호로 크게 격감하였으나, 호당 평균 사육수수는 1990년 1,583수에서 2003년 31,600수로 20배 정도 증가하여 사육수수 5만수 이상의 농가호수 및 사육수수 점유율이 증가하여 전체 사육수수의 70%를 약700개 농장이 점유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이후 사육호수 3,430호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003년 6월 현재 2,440호로 나타났고, 사육수수는 1993년 4,200만수에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현재 호당 사육수수는 22,711수이다. 사육규모 3만수를 전후한 계층분리로 3만수 미만은 사육호수와 사육수수 모두 감소하였고 5만수 이상의 계층은 사육호수와 사육수수 모두 증가하였다. 그 결과 3만수 이상의 농가는 총 사육호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9.3%이지만 사육수수에서는 59%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2. 계란가격의 추이

일본의 계란가격은 가을~겨울 동안의 상승과 여름철에 하락하는 계절적인 변동요인과 더불어 5~6년의 가격변동 주기(Egg Cycle)가 있는데, 난가상승에 의한 생산량 증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저난가로 인

한 생산량 감소가 2~3년간 이어지고 이후 저난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 공급부족에 따른 고난가 형성, 고난가에 의한 생산량이 증가하는 2~3년의 기간이 형성되는데, 1990년 대비 도매가격은 27.8%, 소매가격은 25.6% 하락하였다.

한국은 계란가격 변동주기는 여름철(6~9월)에는 소비가 위축되어 연중 최저치를 형성하는데 연중 가격변동의 폭도 크다. 농가의 계란 판매가격은 생산원가를 밑도는 저난가이고 중간 상인간의 거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며, 실거래가격은 고시가격보다 낮은 이른바 DC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3. 계란 생산비

일본의 계란 생산비중 사료비의 비중이 55%, 성계비 21%, 노동비 16%로 전체의 91.5%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계란 생산비는 일본의 76% 수준이나 항목별 순위는 양국 모두 같아 사료비, 초생추비, 노동비 절감이 경영성과를 좌우하는데, 비용항목을 비교하면 사료비, 노동비는 한국이 더 유리하고 성계비는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계란 100개당 평균 생산비는 7,332원(2002년)으로 나타났고 생산비 구성을 보면 사료비 51.7%, 가축비 29.3%를 차지하여 80% 이상이 사료비와 가축비가 차지하였다.

4. 유통

계란의 유통단계를 비교하면 일본은 계약판매망을 통해 생산자, 판매자와 소비자를 통한 3단계이고, 특수란의 개발주체가 소규모 경영체인 생산농가브랜드, 판매자브랜드, 사료업체브랜드로 크게 구분되고, UR협상 이후 일본의 산란계농가는 생산기술(생산성, cost)의 합리화, 품질추구(고부가가치), 판매대책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특수란 생산담당자는 소규모 농가에서 많았으나 최근에는 대규모 사육농가도 특수란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브랜드 및 품질인증란의 유통량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생산농가, 수집반출상,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경로와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판매량은 수집 반출상 80%, 계란 집하장을 통한 대량 수요처에 공급은 17%, 축협을 통한 군납은 3%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여러 단계로 유통되는 계란에는 유통업체들의 추가적인 유통비용이 전가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결론 및 적요

일본의 산란계 산업은 사육농가수가 감소하면서 특수란을 개발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며 소비자가격과 농가수취가격 간의 폭을 줄여 시장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유지하면서 생산자의 판매가격은 중간 상인에 의해 결정되며, 고시가격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산란계 생산자는 생산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유통부분 참여와 유통마진을 생산자의 수익으로 환원하려는 노력과 함께 가공란의 개발과 판매 등 같은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를 생산계획에 반영하는 경영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사육농가의 구성은 일본의 경우 5만수 이상의 사육농가가 차지하는 농가호수 및 사육수수의 점유율이 증가하여 전체 사육수수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5만수 이상의 사육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정규모 이하의 생산자는 공동의 브랜드 개발과 유통망을 구축하여 생산단계 이후의 유통부분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의 수립과 실천이 중요하다.

인용 문헌

1. 張敬萬, 新井肇, 石岡宏司 1997 特殊卵生産 販賣對應, 農村研究
2. 장경만 2003 일본양계(산란계)산업 현지 방문조사 보고, 양계수급안정위원회
3. 김우호 2003 산란 및 육용종계의 생산성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한경대학교 석사논문 2003년